



아시아리뷰

제14권 제2호(통권 31호), 2024

서평

www.kci.go.kr

저장촌에서 바라본 중국의 개혁·개방

상바오 지음, 박우 옮김, 『경계를 넘는 공동체: 베이징 저장촌 생활사』(2024, 글항아리)를 읽고

정종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중국의 개혁·개방이 결과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다. 덩샤오핑에 의해 추진된 개혁·개방 정책 — 특히, 도시편향적인 정책으로 인한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대도시에서의 3차 산업 및 사영 경제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연해와 내륙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킨 연해지역 우선의 발전전략 — 은 낙후된 내륙의 농촌지역에서 연해지역의 발달된 도시지역으로의 이동을 가속화하였다. 그 결과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중국의 이농민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 초 2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현재 수억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기 중국의 이농민들은 도시에서 장기간 거주할 뿐만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 시기 엄격한 사회통제 및 인구통제를 위해 도입된 호구제도(戶口制度)에 의해 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부정당하였다. 즉 도시민과 농민의 신분을 구분하여 왔던 기존의 호구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호가 없는 이농민들은 도시에서의 주택 공간 확보와 정규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사회복지 혜택은 물론 자녀교육의 혜택에서도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법적인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중국 도시의 이농민들은 도시에서의 생존을 위해 같은 고향(同鄉) 출신의 이농민들끼리 정부의 행정통제가 비교적 느슨한 대도시의 외곽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그들만의 독자적인 동향촌(同鄉村)을 형성함으로써, 도시 내에서의 그들의 열악한 조건을 공동으로 극복해 나갔다. 이러한 이농민들의 집단거주지는 중국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형성되었는데, 특히 수도인 베이징의 경우 1990년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성기였던 1995년 당시 대표적인 것만도 약 20여 개에 달하였다.¹ 이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이 베이징의 저장촌(浙江村)이다.

베이징의 저장촌은 저장성(浙江省) 원저우(溫州), 그중에서도 특히 리칭(樂清)과 용자(永嘉)의 두 지역 출신 이농민들에 의해 핑타이구(豐臺區) 다홍먼(大紅門) 지역에 형성된 동향촌이다.² 텐안먼 광장에서 5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다홍먼 지역은 전형적인 도시와 농촌의 결합 지역(城鄉結合部)으로서 원래 낙후된 농촌지역이었으나, 1980년대 초반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원저우 출신 이농민들이 이 지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베이징 사람들에 의해 ‘저장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즉 저장촌은 자연 촌락도 아니고 행정조직은 더욱 아닌, 이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그들의 집거지다. 저장촌의 원저우 출신 이농민들은 주로 가족경영 중심의 저급·저가 의류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하였다.

『경계를 넘는 공동체: 베이징 저장촌 생활사』는 저장촌에 관한 연구서다. 저자인 상샤오(項飜)는 본인 역시 저장촌 이농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원저우 출신으로 베이징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18년을 원저우에서 살았다. 베이징대학에 입학하면서 상샤오는 저장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1993년 저장촌에 관한 보고서를 학술지 『사회학여사회조사(社會學與社會調查)』에 3회에 걸쳐 게재하였는데, 이는 저장촌에 관한 최초의 학술논문이다(項飜, 1993). 이어 1998년에는 Laurence Ma와 공저로 *China Quarterly*에 저장촌을 포함한 베이징의 이농민 집단거주지에 대한 학술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이 역시 베이징의 이농민 동향촌

¹ 1990년대 베이징에 형성된 이농민들의 집단거주지에 대해서는 정중호(2008) 참조.

² 저장성 출신 이농민들은 1995년 당시 베이징의 여러 곳에 그들의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흔히 ‘저장촌(浙江村)’이라 불리는 곳은 베이징시 남쪽 다홍먼 지역에 위치하였다.

에 관한 최초의 영문 학술논문이다(Ma and Xiang, 1998). 『경계를 넘는 공동체』는 저자가 베이징대학의 학부생 시기부터 시작한 저장촌 연구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다.

II. 주변(边缘)이 쓰는 개혁·개방의 민족지

『경계를 넘는 공동체』의 핵심의제는 ‘여섯 가구의 원저우 출신 이농민으로 시작한 저장촌이 호구제도에 기반한 엄격한 사회통제 및 베이징 정부의 끊임없는 철거 시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베이징에서 가장 큰 저가 의류 제작 및 판매지이자 10만 명이 거주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저자는 구조, 역할, 법칙 등과 같은 이론적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인간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관계’가 어떻게 중첩되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지를 묘사’(94쪽)하고 있다. 이는 인류학은 객관적 세계를 파악하고 지배하는 ‘지배하는 지식’보다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연구 대상과의 상호관찰을 통해 얻어지는 ‘이해하는 지식’이어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6년에 걸친 장기적인 현지 조사를 통하여 저장촌의 형성과정을 참여관찰하였다. 저장촌 조사과정에서 저자는 ‘논문을 쓰는 학생’, ‘저장 리칭현 베이징 연락사무소의 임시비서’, ‘베이징대학 저장촌 사회사업단의 일원’, 저장촌 내 기업의 ‘고문’ 등 네 가지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저장촌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생활에 깊숙이 참여하였다.

상바오는 지리적·사회적·행정적·이념적 경계를 초월하는 저장촌 이농민 공동체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인간관계가 다른 관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확장, 축소 및 변화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개념으로 ‘관계(关系)’와 ‘계(系)’를 제시한다. ‘관계’는 일반적으로 ‘판시’(역자는 저자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관계로 번역)라고 알려진 중국사회의 전통 개념이다. ‘계’는 관계의 구성에서 기본 분석 단위 역할을 하는 연결 클러스터로서, ‘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관계의 조합이라는 점이다. 저장촌에서 하나의 계는 두 개의 ‘아계(亞系)’를 포함하고 있는데, 친

척 및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친우권(親友圈)’과 사업적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권(生意圈)’이다. 상묘오에 따르면, ‘계’는 가족과 친구 및 비즈니스 관계의 중첩으로서 저장촌 공동체 형성의 핵심 단위이며, ‘계’ 내부의 변화 및 다양한 ‘계’ 사이의 상호작용이 저장촌의 형성 및 발전을 결과하였다고 보았다. 여기서 ‘계’는 ‘관계총(关系丛)’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는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따라, 개혁기 중국의 주변(邊緣)에 불과하였던 저장촌의 형성, 확장, 굴곡과 역조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저장촌의 역사적 발전과정 에 대한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저자는 우선 저장촌의 한 평범한 가정인 ‘저우가(周家)’ 일상생활에 대한 민족지적 관찰을 통해 저장촌 공동체 내부의 생활패턴과 변화를 집중적으로 보여 준다. 저장성 원저우의 평범한 한 농촌 가족이 개혁·개방을 맞아 중국 각지와 해외로 흩어져 나가 창업 신화를 일구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를 다루었던 중국 드라마 ‘온주일가인(温州一家人)’(2012년 중국 CCTV1에서 인기리에 방영)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사실적이다.

이어 저자는 ‘연보(年譜)’식의 집필 방법을 통해 저장촌 생활사에 대한 본격적인 서술을 시작한다. 제4장에서 저자는 원저우 사람들이 어떻게 베이징에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엄격한 국가 통제와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원저우 출신 이농민들이 전통적인 가족과 친우에 크게 의존하였던 초기 정착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유출지의 전통적인 친우 관계가 자연스럽게 관계 발전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제5장은 저장촌에 정착한 원저우 출신 이농민들이 어떻게 도시의 공식적 상업체계에 진입함으로써 베이징에서 정착 및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 시기 저장촌 사람들은 국영 상점의 매대 임대를 개척하였는데, 이를 통해 국영 상점 관리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저장촌 공동체 내부에서는 ‘대리 판매’가 출현하였는데, 대리 판매의 도입은 친우권 내부의 최초의 분업, 즉 매대를 임대한 사람과 의류를 만드는 사람 간의 초기 분업을 초래하였다.

제6장은 가족 잠바 제조를 통해 저장촌의 사업 범위가 중국의 다른 지역은 물론 국제시장으로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확장으로 인

해 저장촌 이농민들의 사업상의 합작관계는 기존의 친우 범위를 초월하게 되어, 별개의 ‘사업권’이 출현하였고 ‘고객’이 중요한 관계의 유형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저장촌 사람들의 사업권과 친우권은 초기의 중첩된 관계에서 분리되기 시작하는 동시에 단일 계 내부의 친우 관계와 사업 관계의 중첩도 감소하면서 서로 다른 ‘계’와 ‘계’의 중첩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친우 관계에서 발전한 사업 관계와 사업의 합작 과정에서 형성된 친구가 포함된 ‘핵심계(核心系)’가 출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원저우 사람들은 ‘전국 이동 사업 연결망(全國性流動經營網絡)’을 구축하였는데, 저자는 이를 저장촌 공동체가 진정으로 형성되었다는 상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장촌에는 원저우 이농민들을 위한 각종 생활체계 — 진료소, 유아원, 원저우 특산품 시장 등 — 가 출현하였다.

제7장은 저장촌의 대대적인 발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저장촌에 등장한 두 개의 새로운 공간 — 대규모 도매시장과 복합 주거시설인 단지(大院) — 에 주목하고 있다. 가죽 잡바 제조의 대성공으로 인해 베이징에서 가장 큰 의류 제작지가 된 저장촌의 원저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의류제품을 판매할 합법적인 대규모 도매시장을 저장촌 내에 확보하는 것을 염원하였는데, 이들의 소망은 ‘징원의류도매센터(京溫服裝批發中心)’의 출현과 함께 현실로 이루어진다. 저장촌의 경제적 잠재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평타이구 정부가 저장촌 이농민의 출신지 정부인 원저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저장촌에 건립한 의류 전문 백화점인 징원시장은 건립되자마자 저장촌 사영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징원시장의 출현은 베이징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경제 공간을 원저우 이농민들이 저장촌 내에 보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저장촌 이농민들은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베이징에서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전국적인 이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더욱 발전시켰다. 한편, 저장촌 이농민들의 복합 주거시설인 대원은 의류산업을 통해 상당한 자본을 축적한 저장촌 원저우인들이 현지의 토지를 대규모로 임대하여 그 위에 건축한 대규모 임대 연립 주택을 의미하는데, 단지의 출현은 의류 생산을 위한 경제 공간이 결합된 안정적이고 편리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베이징인의 주택에 개별적으로 거주하여 왔던 원저우인들로 하여금 친우권에 속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 시기 시장 건설과 단지 건설 과정에서 형

해진 다중 합작과 다방향 투자는 서로 다른 친우권 사이에 교차와 중첩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저장촌에서 거물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8장은 1995년 겨울 저장촌을 포함한 베이징의 이농민 집단거주지에 대해 실시되었던 대규모 철거(清理整頓)를 중심으로, 국가와 저장촌 이농민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베이징 정부는 비약적으로 증가한 이농민, 특히 대도시 외곽에 집중되어 있는 이농민 집단 거주지를 도시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를 계획하였다. 베이징 정부는 국무원 최고지도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1995년 11월과 12월에 걸쳐 베이징의 이농민 집단 거주지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잠시나마 저장촌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저장촌 공동체가 기반하고 있는 복잡한 관계가 파괴되었으며, 저장촌과 정부와의 관계가 극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철거가 종료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장촌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저장촌의 권토중래 역시 저장촌 원저우 사람들이 형성한 연결망에 기반한 것이었다.

III. 계와 관계총, 그리고 신사회공간

『경계를 넘는 공동체』는 베이징의 주변인인 원저우 출신 이농민들이 베이징의 낙후된 다홍먼 지역을 어떻게 저장촌으로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생활사 연구다. 동시에 호구제도에 기반하여 고도로 지역화된 통치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중국체제와 지리적·사회적·행정적·이념적 경계를 초월하는 이농민들이, 개혁·개방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저장촌이라는 공간에서 끈임없이 재구성하는 개혁·개방기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민족지이기도 하다. 저장촌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 상방오는 중국사회 연구에 두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저자는 저장촌의 사례에 기반하여 ‘계’의 개념과 ‘관계총’의 시각을 중국사회를 이해하는 보편적인 분석 도구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저장

촌 공동체 형성의 핵심 단위는 친우권과 사업권이 분리 및 중첩하는 계이며, 저장촌의 형성 및 발전은 계 내부의 변화 및 다양한 계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저장촌의 초기 정착 과정은 전통적인 친우 관계에 의존하였고, 국영 상점의 매대 임대와 이에 따른 대리 판매는 친우권 내부에 최초의 분업을 초래하였으며, 가죽 재킷 제조를 통한 저장촌의 확장은 기존의 친우 범위를 초월한 사업권의 출현 및 계와 계의 분리 및 중첩과 연결되어 핵심 계의 등장으로 이어졌고, 대규모 시장 건설과 단지 건설은 친우권과 사업권 사이에 교차와 중첩의 관계를 확장하였으며, 1995년 겨울 실시되었던 대규모 철거에도 불구하고 저장촌이 빠르게 재건될 수 있었던 이유도 원저우 사람들이 형성한 관계총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계의 개념과 관계총의 시각을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보편적인 분석 도구로 제시하는 저자의 시각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참신한 시도다. 즉 구조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와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계를 이해함으로써, 저자는 중국인의 관계를 서구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국만의 독특한 것으로 ‘특수화(特例化)’하는 연구 경향과 중국인의 관계를 특수한 ‘자본’, 특수한 ‘연결망’의 방식 등으로 ‘단편화(片面化)’하는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중국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저자는 저장촌의 사례에 기반하여, 중국의 체제 전환기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개방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있어 ‘신사회공간(新社會空間)’의 역할을 강조한다. 신사회공간은 저자가 저장촌을 특징화하고 있는 핵심 개념이다. 중국은 여전히 호구제도에 기반하여 농촌과 도시의 엄격한 경계로 대표되는 고도로 지역화된 통치 체제를 고수하고 있기에, 이러한 체제에서 벗어나 형성된 저장촌은 지리적, 체제적(당 조직, 도시의 단위, 농촌의 지역사회 조직, 신분적(도시민과 농민) 등 일련의 사회적 ‘경계를 넘는 공동체(跨越邊界的社區)’이다. 여기서 ‘경계를 넘는 공동체’란 유입지와 유출지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전국을 아우르고 나아가 외국까지 확장된 연결망에 기반하여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고도로 통합된 사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체제 밖’의 의미를 지닌다. 저자에 따르면, 원저우 이농민들이 베이징에 정착한 후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만의 공간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공간’은 새로운 사회조직 방식과 생활방식

을 보여 주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적 경계를 넘어 체제의 변혁을 촉진하는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출현할 ‘경계를 넘는’ 신사회공간이 개혁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IV. 나오며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중국사회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한 이농민과 그들이 도시에 형성한 집단 거주지이다. 고도로 지역화되어 있는 중국의 통치 시스템의 엄격한 경계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의 존재는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저장촌에 대한 상바오의 연구는 개혁기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매우 귀중한 연구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의 삶과 일을 통해 어떻게 중국 개혁·개방의 기적을 만들었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제로 몇 가지 논쟁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대표성의 문제이다. 저자는 저장촌의 사례를 통하여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보편적인 개념을 도출하려고 시도했다. 즉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보편적인 분석 도구로 계와 관계총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저장촌이 지리적·사회적·행정적·이념적 경계를 초월하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수수께끼는 계와 관계총이 어떻게 분리, 중첩, 및 변화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저장촌 원저우 사람들이 가죽 재킷 제조를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매번의 혁신이 한 가족에서 시작하여 저장촌 공동체 전체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도, 전국적 이동 사업 연결망이 신속하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도, 단지 건설과 시장 건설 과정에서의 다중 투자(합작)와 다방향 투자가 거물을 출현시킨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심지어 저장촌에 패거리(幫派)가 급속히 형성될 수 있었던 것도 계와 관계총, 특히 핵심 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저자의 시각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참신한 시도다. 그러나 친우권과 사업권이 분리 및 중첩하는 계가 공동체의 핵심 단위로 존재하는 수준 및 정도, 그리고 계 내부의 변화 및 다양한 계 사이의 상호작용이 공동체의 변화를 결과하는 수준 및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중국 사회 내부에 수많은 다양성과 변이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저장촌 이농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원저우 출신 이농민들은 중국의 전체 이농민 집단 내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이농민들이 자본과 기술 없이 도시에 진입한 후 노동력에 의존하여 도시의 기존 시장에 흡수되는 육체노동자(民工)인 반면, 원저우 출신 이농민들은 고향 온주에서 획득한 소규모 자본과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도시에 진입하여, 가내공업을 기반으로 한 경공업 제품 위주의 소상품 생산에 종사하고, 동시에 이러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을 개척하려는 소규모 사업가이다. 그 결과 거주 공간에 불과한 다른 이농민들의 집단 거주지와는 달리, 원저우 이농민들의 집단 거주지인 저장촌은 거주 공간인 동시에 생산 및 판매 시장을 포함한 생산 기지 및 판매 기지였다.³

원저우 이농민들의 이러한 독특성으로 인해 저장촌에서는 친우권과 사업권의 중첩으로서 계가 공동체 형성의 핵심 단위가 되었으며, 다양한 계 사이의 상호작용이 저장촌의 발전을 결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장촌의 경험을 중국사회를 이해하는 보편적인 개념을 도출하기에는 대표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도 이 문제를 의식하여 ‘응집성(聚合性)’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장촌과 베이징의 다른 이농민 집단 거주지들과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농민 집단 거주지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존재하는 농촌, 농민, 농업적 지위를 변경하는 ‘제도적 변경(轉制)’과 대형 개발상(開發商)이 참여하는 ‘재개발(改造)’로 인해 대부분의 이농민 집단 거주지가 사라진 데 반해, 원저우 이농민들은 중첩되고 확장된 핵심 계와 대규모로 축적한 부를 기반으로 저장촌 지역의 도시재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은, 저장촌의 경험을 통하여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표성의 문

³ 이와 같은 원저우 이농민들의 독특한 특징은 원저우의 상업적 전통 및 독특한 경제발전 방식인 원저우모델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Jeong(2014) 참조.

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신사회공간의 성격과 전망에 관한 문제다. 저자에 따르면, 신사회공간은 농촌과 도시의 엄격한 경계로 대표되는 고도로 지역화된 통치 체제에서 벗어나, 기존의 고도로 통합된 사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체제 밖’의 공동체다. 원저우 이농민들이 베이징에 정착한 후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경계를 넘어서 그들만의 공간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자는 이 공간이 공식적인 체제 밖에 형성된 새로운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사회 분리의 시각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저자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p.29), 저장촌을 둘러싼 상이한 국가기구 및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연대, 협상, 갈등, 그리고 대립 관계에 관한 분석은 저자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저자는 일련의 경계를 넘어 체제의 변혁을 촉진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신사회공간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개혁의 심화와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저장촌을 목격하면서, 신사회공간이 일시적인 과도기적 공간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며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개혁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베이징의 비수도기능 해체 분산(疏解北京非首都功能)을 핵심으로 하는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공동발전이 2015년부터 추진되면서, 저장촌의 의류산업이 베이징에서 사라져야 할 ‘비수도기능’으로 지목되었고 이에 따라 저장촌의 신사회공간이 근본적인 위기를 맞이한 현실은 저자의 낙관적인 신사회공간에 대한 전망에 의문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객관성의 문제다. 비록 자신은 전형적인 원저우 사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저장촌 이농민들과 같은 지역 출신인 저자의 독특한 상황은 연구의 객관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원저우 이농민들의 삶과 일에 대한 저자의 깊은 개입은 때로는 저장촌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자는 허술한 도매시장을 대체한 대형 고급백화점, 기존의 가내수공업을 대체한 대규모 의류기업, 친척이나 동향 관계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난 공식적인 사회관계 등을 포함하는 공식화(正規化)된 최근의 저장촌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 기존의 저장촌에 대해서는 낭만적인 향수를 보이고 있다. 저자는 확장된 행정적 틀 아래에서 작동하는 단

일화된 시장 법칙의 확대에 의한 이러한 공식화가 사람이 주체였던 신사회공간으로서의 저장촌을 땅이 주체인 물리적 공간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저장촌 공식화의 최대 수혜자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화된 다양한 지방정권인 반면, 자본 및 공식권력과 연결되지 않은 저장촌 사람들은 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장촌 지역에 창출한 막대한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퇴출당했다고 보았다(65쪽). 저장촌 공식화가 결과한 원저우 이농민들의 배제 및 소외에 대한 저자의 이러한 관찰은 타당하다. 그러나 사람이 주체인 신사회공간이라고 저자가 강조한 기존의 저장촌에서 발생하였던 수많은 배제와 소외, 특히 원저우 이농민들에게 고용되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하루 평균 16시간 일하며 착취당하였던 타 지역 출신 젊은 여성 이농민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저장촌에 대한 낭만적인 향수는 저자의 독특한 상황 및 깊은 개입과 관련되어 객관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투고일: 2024년 7월 27일 | 게재확정일: 2024년 7월 31일

참고문헌

- 정종호. 2008. “북경시의 도시재개발 정책과 북경 “동향촌(同鄉村)”의 변화.” 『현대중국 연구』 제9집 2호, 37-79.
- 項飏. 1993. “北京有個浙江村: 社會轉型中一個自發城市化群體的初步研究(上, 中, 下).” 『社會學與社會調查』 3-5, 33-50.
- Jeong, Jong-Ho. 2014. “Transplanted Wenzhou Model and Transnational Ethnic Econom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3, No. 86, March.
- Ma, Laurence J. C. and Biao Xiang. 1998. “Native Place, Migration, and the Emergence of Peasant Enclave in Beijing.” *China Quarterly* 155, 547-581.

